



여수 송기훈



영남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김흥필



진도 조상웅



함평 김광훈



화순 박순철

# 화순군, 친환경벼 유기농 전환 박차

## 올해 친환경 농업예산 174억원...2020년 유기농면적 879ha 전향 유기농 쌀 시중가격 일반벼보다 20% 높게 형성...농가소득 증대

화순군은 친환경 벼 무농약재배를 전체적으로 구조개편하여 유기농으로 전환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화순군 친환경 농업 예산은 174억원으로 62백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 유기농 전환 확대가 성공할 경우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비, 친환경지불제 증액으로 4억여원이 추가 증액 지원된다.



화순군은 총 벼 재배면적 4,500ha 중 1,025ha 22%를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다. 이중 유기농이 27.6ha, 무농약이 997.4ha로 무농약 비중이 높으며, 무농약재배를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재배한 면적이 그 중 90%에 달하며 무농약벼는 일반벼에 비해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못해 해마다 친환경 벼 생산을 고민하게 만든다.

유기농으로 전환될 경우 친환경 쌀 급식으로 전량 공급되고 시중 가격도 일반벼에 비해 20% 이상 높게 형성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유기농 쌀 선호도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

에 농업의 미래를 위해 이를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화순군은 친환경재배를 위해 육묘용 상토부터 새끼우렁이, 유기농업자재, 친환경 공등방제지원, 생산장려금,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친환경재배를 하면 농가재비용을 군에서 90% 이상 지원하고 있다.

유기농으로 구조적 전환을 위해 2018년부터는 무농약 지속직불금을 유기농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무농약 6회차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생산장려금 또한 유기농·유기농전환기반 지급할 계획이며, 2019년부터는 친환경단지조성사업비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무농약지속직불금은 m당 유기농 35원, 무농약 25원이며, 친환경단지 조성사업비는 m당 유기농 120원, 유기농 전환 100원, 무농약 70원, 생산장려금은 m당 24원이다. 또한 유기농 업자재지원을 유기농은 m당 100원, 무농약은 70원 지원한다.

화순군 유기농 벼 면적은 2015년 24ha, 2016년 25ha, 2017년 27.6ha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으며, 무농약 유기농 전환을 2017년 139ha 추진하였고, 2018년 852ha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유기농전환이 완료되면 2020년 화순군 유기농 면적이 879ha정도로 대폭 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국비유치로 친환경 농가 지원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며, 농가 소득을 올리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순천시, 친환경 보일러 교체비 지원

### 저소득층 대상

순천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설치비의 90%를 지원(상한액 65만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 시민 원탁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합의된 시민의 생각을 2018년 신규 시책으로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속의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노후 일반보일러를 저녹스(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은 더 높아져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천시로 되어있는 가구주이며, 주택소유주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전 유의할 점은 친환경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여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한 장소에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설치 대리점에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환경보호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천=김종영 기자



## 광양시, 서천변 야경길 조성한다

### '서천변 벚꽃 야경길 조성사업' 선정...올해 말까지 추진

광양시는 좋은 경관만들기 추진단 해당 구간에는 LED 조명등과 경관개선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한 '서천변 벚꽃 야경길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난해 '서천 잠미공원 야경길 조성사업'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좋은 경관 만들기 경관개선 공모사업'은 공공기관의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민 스스로가 경관을 가꾸어 나가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서천변 일원에 빛나루 LED 투광등과 시민과 함께하는 그림자 조명 설치 등을 기획해 응모했으며, 공모에 선정돼 도비 2천5백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확보한 도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칠성·편한세상 아파트 인근 세월교부터 서산교까지 800m 구간에 야경길을 조성한다.

해당 구간에는 LED 조명등과 100m 간격으로 그림자 조명등이 설치되며, 기존의 조성된 서천 잠미공원 야경길과 광양숲블루이 축제, 앞으로 조성될 광양블루이 특화거리와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규광 도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천변 일부 구간에 벚나무를 따라 야간 조명을 설치해 벚꽃이 피는 봄에는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발길 안전을 지키는 야경길로 활용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광양을 서천 잠미공원 야경길 조성사업'이 매화아파트 앞에서 서천교까지 약 500m구간에 아름다운 잠미와 야간 조명이 어우러져 시민들의 휴식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가족이 되었어요' 원화 순회전시 운영

###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본관층 전시실에서 입양 그림책 '가족이 되었어요'의 원화 순회전시가 17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순회전시는 국내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시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중앙입양원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번에 전시할 '가족이 되었어요'는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해 중앙입양원에서 발간한 그림책이다.

입양 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입정진 동화작가가 글을 쓰고 이규규 그림책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이 책은 어떻게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림책으로 서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원하는 가족을 찾아가는 과정을 15컷의 그림과 글로 전달하고 있다.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관계자는 "'가족이 되었어요' 원화 순회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낯설 수도 있는 입양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일 오후 2시에는 입정진 동화작가와 만남이 있을 예정이다. '가족이 되었어요' 원화 순회전은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을 시작으로 2018년 11월까지 전국 순회전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 061-749-8892로 하면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 '남도바닷길 광역시티투어' 운영

### 광양시, 19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운영

광양시는 오는 19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광양, 순천, 여수, 보성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남도바닷길 광역시티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광역시티투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 시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투어는 광양, 여수, 순천, 보성 등 4개 지자체의 자체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투어는 홀수 주에는 '남도랑 코스'(광양~여수~순천), 짝수 주에는 '바다랑 코스'(광양~보성)로 구성해 각각 최대 40명씩 모집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는 가운데 광양의 주요 관광지와 여수, 순천 보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남도랑 코스'는 광양해피마을을 시작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이순신대교가 보이는 구룡신전망대를 거쳐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여수 이순신관광과 순천만 국가정원을 차례대로 방문한다.

'바다랑 코스'는 광양해피마을을 시작으로 운동주 유교가 보존된 진월면 망덕포구 정병육을 방문한 후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보성 대한다원과 태백산맥문화관을 구경하는 코스로 이뤄졌다.

요금은 성인 8,000원, 장애인·군인·경로자 4,000원, 초·중·고 학생은 2,000원이며, 유료관광 입장료와 개별 식사비는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

탐승은 광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오전 9시, 중미동 관광안내소에서는 오전 9시20분에 가능하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화순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신암삼, 방울도마도, 느타리버섯